

쉼과 휴식, 힐링이 있는 템플스테이

무등산 증심사 지역사회·시민 위한 공익형 템플스테이 운영 예불·명상 체험...하반기 3·1운동 100주년 해외역사기행도

쉼과 휴식 그리고 힐링... 산사체험 하면 떠오르는 말이다. 템플스테이는 일상에 잠시 떠나 전통 사찰에 머물며 참선, 예불, 발우공양 같은 체험을 해보는 프로그램이다. 전통 사찰의 그윽한 분위기와 아름다운 산세는 그 자체만으로도 위안과 평안을 준다.

무등산 증심사(주지 중현스님)가 지역사회와 광주시민을 위한 공익형 템플스테이를 운영한다. <관련기사 22면>

재충전과 힐링이 필요한 이들에게 템플스테이 체험을 일부 지원하는 일명 '나눔 템플스테이'다. 증심사는 1인당 7만원인 1박2일 템플스테이 체험비용을 기관 및 단체에 따라 무료에서 1인당 최대 5만원으로 할인해 지원한다. 이를 매일 2~3회씩 20~50명 규모로 운영할 방침이다.

증심사는 지난 15일 오후 2시 증심사 취백루에서 참여를 원하는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공익형 템플스테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theac(청년), 광주 여성의 전화(여성), 광주 동구 드림스타트(아동)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광주북구사회경제적연합회, 광주남구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모두 20여개 단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증심사는 지난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템플스테이 운영사찰로 선정돼 한정적으로 운영을 시작했다. 이후 2008년 한국불교문화사업단으로부터 템플스테이 운영사

찰로 지정돼 10년 동안 현재까지 2만여 명의 내외국인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표적 전통문화체험사찰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지난 2014년에는 빛고을자연사찰음식체험관을 개관해 사찰음식의 대중화를 위해 제철요리강좌, 어린이 문화교실, 다문화 가정 요리교실, 외국인 사찰음식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을 진행했다.

이번 공익형 템플스테이는 지역 시민단체, 복지기관, 아동 및 청소년·어르신 관련 지역단체들이 참여해 의미가 남다르다. 특

히 주지 중현스님의 비로전 100일 기도 회향을 기념하고 증심사가 쉼과 휴식이 필요한 이들에게 편안한 안식처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했다. 물론 공익형 나눔 템플스테이 외에도 일반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단일형, 휴식형, 체험형도 준비돼 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예불, 명상, 스님과의 차담 등이다. 예불은 희망자에 한해 참여할 수 있으며 사찰 인근 무등산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있다. 또한 사찰음식 체험관을 연계해 사찰음식 체험도 가능하며 자체프로그램과 연계해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3·1운동 100주

년을 기념해 해외역사기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증심사는 수년 전 동북아역사기행 일환으로 백두산을 방문한 적이 있다. 올해는 선열들의 독립에 대한 열망과 뜻을 되새기고 이를 일상에서 구현한다는 데 초점을 두고 진행할 예정이다.

증심사 템플스테이 관계자는 "템플스테이 문화관 3개동을 신축해 개별방사 12개실과 프로그램실 2개실을 개설했다"며 "기존 한옥의 불편한 점을 대폭 개선해 참가자들이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증심사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 062-226-0107, 010-4618-1366.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지난해 증심사에서 진행한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외국인들이 경내에서 한가로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증심사 제공>



젊은 성악가들이 클래식 대중화를 위해 결성한 단체 '친친클래식'.

클래식·팝·가요·재즈 다양한 무대

성악 앙상블 '친친클래식' 23일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성악 앙상블 '친친클래식'이 오는 23일 오후 7시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첫 번째 정기연주회를 연다. 성악 전공자들로 구성된 친친클래식은 지난 2014년 창단했다. 이들은 전국 곳곳의 무대에 오르며 클래식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광주문화재단 주최 월요콘서트, 서울문화재단 '삼각산청이' '좋은', 세계청년축제 개막공연 등의 무대에 섰다.

'볼라레' (Volare·날다)를 주제로 내건 이날 공연에는 이간·장선근·조형빈

(이상 바리톤), 김진우·김태형·공성준(이상 테너)씨가 출연한다. 성악가로 활동하는 조형빈씨가 사회를 맡는다.

이날 무대는 클래식을 기반으로 한 팝, 가요, 재즈 등 다양한 장르로 꾸민다.

먼저 뮤지컬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수록곡 '투나잇'으로 문을 열고 이탈리아 칸초네 '볼라레'와 '사랑에 관한 책', 뮤지컬 '맨 오브 라만차' 중 '이룰 수 없는 꿈' 등이 이어진다. 이선희 '아름다운 강산', 김현식 '사랑 사랑 사랑', 윤복희 '여러분' 등 명가요도 무대를 채운다.

전석 2만원(학생 1만원). 문의 010-8494-1621.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시 전문지 계간 '시산맥' 봄호 나와

신인 시문학상 수상작 실어

시 전문지 계간 '시산맥' 봄호(통권 37호)가 나왔다.

이번 호에는 '2019년 시산맥 신인 시문학상' 수상작품과 제9회 시산맥작품상 후보 작품 등이 실려 있어 다양한 시와 시인들의 시 세계를 가늠할 수 있다.

먼저 시산맥 신인 시문학상에는 해남 출신 박민서 시인의 '벽 앞에서' 외 4편과 한영미 시인의 '이상한 나라의 엘리프스' 외 4편이 수록돼 있다.

박민서 시인은 수상소감에서 "바람이 불어 수없이 버렸던 시들, 압력밥솥에 마음을 꼭 눌러두고 배회할 때마다 미련 없이 시는 아침에 뜨거운 수증기로 다시 내게 다가왔다"고 밝혔다.

또한 한영미 시인은 "시와 오래된 연인처럼 살아왔다. 벽치게 가슴 뛰던 날도 있었고, 눈빛만 마주 보아도, 손끝만 닿아도, 하나로 소통되던 날도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제9회 시산맥작품상 후보 작품 '봉투 같은 걸 들고' (김룡), '집작을 넘어' (유

병욱), '스포일러' (이현승), '우리들의 피리' (최연수), '항(상)상' (김정진), '사과' (박수현)도 실려 있다. 이밖에 김형영, 유강희, 문정영, 최예란, 김현주, 성백선, 이제니, 이령, 정지우, 김인숙, 전명옥 시인 등의 신작시와 서숙희, 박명숙, 조안, 정옥순, 표문순 시조시인의 시조도 담겨 있다.

'시산맥이 찾아가는 시인'에서는 오늘 시인을 조명했다. 지난 2006년 '서시'로 등단한 오늘 시인은 '나비아, 나야' 작품집을 펴냈다.

강경희 문학평론가는 "익숙하지만 친근할 수 없는 세계, 주관적 경험을 내장하지만 절대 구체적 현실로 구현되지 않는 탈각화된 장소를 끊임없이 직조해낸 다. 그가 구성하는 이 장소의 비장소성은 현실 일반의 논리 밖에 존재한다"고 평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봄 알리는 천사들의 합창 무대 열린다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23일 문예회관 정기 연주회

봄을 알리는 천사들의 합창 무대가 열린다.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사진)이 오는 23일 오후 7시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128회 정기연주회 '봄의 꿈길에서'를 연다.

공연은 '내 마음 속 명곡', 무반주 합창 음악, 한국민요 등 순서로 진행된다. 첫 번째 순서에서는 이현철의 '봄아 오나라', 포스터의 '꿈길에서', 케냐 민요 '잠보 브와 나&콤바' 등을 부른다. 1부에서 만나는 멘델스존의 '노래의 날개 위에'는 화음의 각 음을 동시에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차례로 연주하는 '아르페지오' 주법 반주가 곁들여진다. 이어지는 무대는 무반주 합창으로 꾸며



진다. 파헬렐의 대표곡 '캐논' 등을 무반주로 부르고 '알렐루야 알렐루야', '니옹 니옹'을 신보영의 퍼커션 연주와 함께 무대에 올린다.

마지막 무대는 한국 민요로 채워진다. '강강술래', '한강수 타령', '빛고를 아리랑'으로 화음을 선사한다. 5·18광주민주화 운동 정신을 노래한 '빛고를 아리랑'은 2012년 광주세계아리랑 축전 주제음악으

로 불렀다. 이날 파이오니아 남성 중창단과 광주 CBS여성합창단이 특별 출연해 뮤지컬 '이순신' 삽입곡 '나를 태워라'와 뮤지컬 '레미제라블'의 '민중의 노래가 들리는 가', 전인권의 '격정말야요 그대', '붉은 노을', '첫사랑' 등을 선보인다. 전석 1만원(학생 5000원). 문의 062-613-8246.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문화예술 강좌 강사 모집 대동문화재단, 28일까지

(사)대동문화재단은 오는 28일 오후 4시까지 '2019년 문화예술강좌' 참여 강사를 모집한다.

강좌는 음악(우쿨렐레, 오키아나 등), 미술(세밀화), 국악, 시낭송, 서예, 음악치료, 건강댄스 등을 과목으로 해 진행된다.

상반기(4~7월)·하반기(9~12월)로 나눠 일주일에 한 번 2시간씩 수업이 열린다.

재단은 지난 14일까지 교육을 진행할 26개 기관을 공모를 통해 선정했다.

재단은 강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과 사업성과를 공유하는 통합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신청서는 대동문화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한 뒤 전자우편(ddmh95@hanmail.net)으로 내면 된다. 문의 070-4496-5508.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시 전문지 계간 '시산맥' 봄호(통권 37호)가 나왔다. 이번 호에는 '2019년 시산맥 신인 시문학상' 수상작품과 제9회 시산맥작품상 후보 작품 등이 실려 있어 다양한 시와 시인들의 시 세계를 가늠할 수 있다. 먼저 시산맥 신인 시문학상에는 해남 출신 박민서 시인의 '벽 앞에서' 외 4편과 한영미 시인의 '이상한 나라의 엘리프스' 외 4편이 수록돼 있다. 박민서 시인은 수상소감에서 "바람이 불어 수없이 버렸던 시들, 압력밥솥에 마음을 꼭 눌러두고 배회할 때마다 미련 없이 시는 아침에 뜨거운 수증기로 다시 내게 다가왔다"고 밝혔다. 또한 한영미 시인은 "시와 오래된 연인처럼 살아왔다. 벽치게 가슴 뛰던 날도 있었고, 눈빛만 마주 보아도, 손끝만 닿아도, 하나로 소통되던 날도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제9회 시산맥작품상 후보 작품 '봉투 같은 걸 들고' (김룡), '집작을 넘어' (유병욱), '스포일러' (이현승), '우리들의 피리' (최연수), '항(상)상' (김정진), '사과' (박수현)도 실려 있다. 이밖에 김형영, 유강희, 문정영, 최예란, 김현주, 성백선, 이제니, 이령, 정지우, 김인숙, 전명옥 시인 등의 신작시와 서숙희, 박명숙, 조안, 정옥순, 표문순 시조시인의 시조도 담겨 있다. '시산맥이 찾아가는 시인'에서는 오늘 시인을 조명했다. 지난 2006년 '서시'로 등단한 오늘 시인은 '나비아, 나야' 작품집을 펴냈다. 강경희 문학평론가는 "익숙하지만 친근할 수 없는 세계, 주관적 경험을 내장하지만 절대 구체적 현실로 구현되지 않는 탈각화된 장소를 끊임없이 직조해낸 다. 그가 구성하는 이 장소의 비장소성은 현실 일반의 논리 밖에 존재한다"고 평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그린궁 HOME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